

개성공단 살아났다

재발방지·해외투자 공동 유치 등
남북 7차회담 정상화 5개항 합의

남북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 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 남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상부의 위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남북 실무회담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북 양측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 입주기업 인들은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준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을 ‘화합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작은 통일 마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정상화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정부, 북측 당국과 근로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전 세계가 투자하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입주기업들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또 먹구름

노조 투표 70.7% 가결
2년 연속 파업 위기

3000억원 들인 2공장
가동 한달안돼 중단 우려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6월 말 최종 합의된 62만대 증산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8면> 14일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12~13일 광주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의사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3만486명 가운데 2만6393명이 투표(투표율 86.6%), 이 중 2만1551명이 찬성에 70.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일부

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재 현대차 노조와 동시에 쟁의신청을 한 기아차 노조의 경우 현대차 노조가 20일 파업을 예고한 점을 감안해 이날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광주공장이 3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사가 62만대 증산 합의를 통해 7월 400여명의 신규직원을 투입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했던 2공장 증산은 가동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품질 및 생산에서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외 2만여 대의 주문량이 적체돼 있는 3공장의 봉고트럭 생산도 늦춰지게 돼 수출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 하락도 불가피해진다.



폭염, 녹여버리면 그만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된 14일 오후 영암 대불산단내 디에스중공업에서 용접 근로자가 두꺼운 특수 작업복과 마스크를 쓴채 특수크레인 용접을 하고 있다. /영암=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의 올 1월부터 7월까지 생산실적은 27만4162대로, 전년 동기의 28만284대보다 6122대(2.1%)나 적어 올 목표 생산량 50만대 생산은 물론 지난해 생산량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기아차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62만대 증산 위해 그동안 투자했던 증산 시설이 정상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멈춘 처지에 놓였다”며 “조속히 임금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20여개의 별도요구를 내놓고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주요 쟁점을 끄집어내는 힘들다”며 “노조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내수시장 상진 속에 해외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파업이 이뤄지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10~201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09년까지 19년 연속 파업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역대 최장·최대·최다 파업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방안 조속 마련” 광주 지하철 2호선 내년 하반기에 설계 착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감안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향후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역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 구간은 애초 직선 신설로

계획했으나 지역에서 무안공항 경유를 계속 주장, 지난해 8월 전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선을 우선 사용하고 여건 성숙시 무안공항 경유 신설을 추진하기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한 뒤 “현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배려, 국민 대통합 등 정책기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공약

사업임을 감안, 추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중 보성~임성리 구간만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03년 12월에 일부 공구를 착공했으나 재정여건으로 2007년 4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라며 “지난 2011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규모를 조정해 보완설계 중으로 조속히 재작업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서

장관은 “고가경전철에서 저속도경전철로 건설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52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체부 1차 심의 결과,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의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8월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고장

DYNASTY COUNTRY CLUB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함평다이너스티CC

■ 하절기(8~9월) 그린피 할인 이벤트 실시
■ 예약전화: 061_320_7700·7777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